

“믿음의 이론과 실제”

사무엘상 8:1-9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정직하지 못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으매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삼상 8:1-3)**

사무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직을 배우지 못하게 된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분석하곤 합니다.

첫째,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가정을 소홀하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회에 너무 나도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생기곤 한다고 합니다.

둘째, 엘리와 마찬가지로 부인쪽의 믿음이 남편의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인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올바르게 심겨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내릴 정도로 사무엘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삼상 8:4-5)**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더 높은 신앙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얻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 앞에 닥친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희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실제 그들의 삶은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낙심으로 힘겨워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내 현실에 돌아와 보면 그 신앙과 믿음이 정작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무작정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것과 맞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안되면 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 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 28:1-6)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 오는 어려움을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일하심의 순간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다리는 시간이, 시간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죄이지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어도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닥친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애굽에 평생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근만 피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었 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강도는 더 세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 12:11-13)

그의 아내로 인해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거짓말로 인해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목숨은 건진 것 같으나,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눈 앞에 보이는 실제 상황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실상’ 이요, 실제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곧 허상입니다.

믿음을 부여 받으십시오. 진정한 ‘실체’요,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에 대해 이론과 실체는 언제나 충돌합니다. 이 둘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체가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으나, 그의 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두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우리 가정에 그것을 적용시켜 말해 봅시다.
2. 믿음에는 이론과 실체가 언제나 충돌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